



『그림 전 언제 놀아요』
(최종득 엮음/2020/어린이시나라)

1. 동시 맛있게 읽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

날마다 읽기+

동시 맛있게 읽는 방법

01



눈으로 읽어요

02



소리내어 읽어요

03



마음에 드는 시는
 옮겨 적어요

<사랑 친구 되기>

- ◎내 마음에 드는 시를 차곡차곡 모아요.
- ◎마음에 드는 시는 외워서 낭송해봐요.
- ◎시로 쓰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바로 적어요.

2. 날마다 동시를 읽습니다.

<방법1> 매일 조금씩 나누어 읽어요.

<방법2> 차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시부터 골라 읽어요.

<방법3> 시집이 마음에 들면 한 번에 읽어요.

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읽고 싶을 때마다 꺼내 읽어요.

※ 눈으로 한번, 소리 내어 한번, 옮겨 적으며 한번! 이렇게 읽으면 시를 더 맛있게 읽을 수 있어요.

날마다 동시 읽기

	읽은 시	쪽수	읽은 날짜	가장 좋았던 시 (제목쓰기)
1	아빠(서종민)~겨울(민지윤)	처음~36쪽		
2	어떤 할머니(강희우) ~ 맛있는 인생(김다운)	37~66쪽		
3	마늘을 나르는 손(김민규) ~ 시(이승민)	67~93쪽		
4	시험 치는 날(이자령) ~ 내 다짐(황서연)	94~120쪽		
5	아빠 얼굴(김설미) ~ 와플 파는 아저씨(홍지원)	121~149쪽		
	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 고르기			

3.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옮겨 적어 봅니다.

(시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색, 모양, 무늬 등으로 그려 넣어도 됩니다.)



내 마음에 들어온 시

※ 이 시를 고른 까닭 간단하게 Tm기

5. [나도 시인] 내 경험을 살려 시를 써 봅시다.

처음 아이들과 시 공부를 할 때, 시는 별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. 답답하거나 가슴에 맺힌 것을 토해내듯이 쓰면 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.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.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좋은 시를 썼습니다. (151쪽)

<엮은이의 말> 중에서

제목: